

◇3kg 이하 소아에서의 개심술

이창하, 김수철, 이택연, 전홍주, 김웅한, 정철현, 이영탁, 박영관, 김종환,
홍승록

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최근 선천성 심장 질환의 개심술을 이용한 수술 성적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의 환아에서의 개심술과 관련된 위험은 여러 보고에서 강조되고 있다. 이에 본원에서 개심술을 시행 받은 3kg 이하 소아의 수술 성적 및 관련 위험인자를 비교하였다.

방법 : 95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수술시 몸무게가 3kg 이하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28명에서 개심술을 시행하였다. 28명의 환아의 연령은 평균 41 ± 31 일이었고, 몸무게는 평균 2.7 ± 0.4 kg이었다. 97년 1월 이후 심근보호법의 변화가 이루어져 이를 경계로 97년 1월 이전에 수술 받은 환자는 I군 (n=21)으로, 그 이후를 II군 (n=9)으로 하여 수술 성적을 비교하여 보았다. 본원의 심근보호법의 변화에는 심정지액의 조성의 변화, 심폐기 충전액의 조성 변화 및 양의 감소, 변형 초여과법의 적극적인 적용, 수술실의 온도 하강 등이 포함된다.

결과 : 수술 사망예는 모두 7례 (25%)였으며, I군에서 6례 (31.5%), II군에서 1례 (11%)였다. 수술후 I군에 비해 II군에서 폐동맥 고혈압 발작이나 기타 합병증의 발생이 적었다. 21명의 환자에서 평균 10 ± 8 개월동안 추적 관찰하였다. 만기 사망예는 2례 (9.5%)로, 모두 I군의 환자였다.

결론 : 최근 본원에서의 심근보호법의 변화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3kg 이하의 소아에서의 개심술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수술전 정확한 해부학적인 평가와 수술시 적절한 심근보호법 및 수술후 집중적인 중환자실 치료로써, 비록 체중이 작은 환아라 할지라도 출생후 조기에 개심술이 필요한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이창하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이창하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